中國語文學 第72輯(2016.8) 33-60쪽

徐俯의 詩論과 시 세계

김성수*·이치수**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徐俯의 생애 및 시대배경
Ⅲ. 徐俯와 豫章詩社
Ⅳ. 徐俯의 詩論
Ⅴ. 徐俯 詩의 내용과 風格
Ⅵ.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북송 말에서 남송 초(1127~1162)에 이르는 기간은 시대적 상황으로 정치·경제·사회가 급변하였고, 詩壇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詩史의 관점에서 보면, 북송은 蘇軾과 黃庭堅을 대표로 하는 元祐 연간이 북송시의 전성기였고, 남송은 陸游와 楊萬里 등 '中興四大家'를 대표로 하는 乾道·淳熙 연간이 시의 최고봉이었으며, 그 사이는 상대적으로 시의 발전이 저조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소식과 황정견의 遺風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시인들과 詩社를 형성하여 詩歌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시단이 새로운 전성기로 향하는데 기초를 닦아 놓는 역할을 하였는데, 서부가 바로 그 속에 있다. 서부(1075~1141)는 자가 師川이고, 호는 東湖居士이며, 洪州 分寧(지금 江西 修水)사람이다. 그는 북송과 남송에 걸쳐서 살았던 江西詩派의 대표시인 중 한 사람이고, 豫章詩社의 영수로

* 第1著者,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 交信著者,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www.kci.go.kr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강서시파 詩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詩學을 주장하며 스스로 一家를 이루려고 노력했었다. 南渡 후 강서시파의 中小詩人들이 봉기하여 남송초기 주요 시단을 형성했을 때, 서부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시의 변화를 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서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宋詩史≫[1]에서 南宋 初期의 시를 논하면서 서부와 그의 시에 관해 소개하였다. 중국에서 서부를 연구한 것으로는 석사학위논문 1편과 약간의 일반논문 등이 있다[2]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南宋 初期 詩壇의 구성원인 서부의 생애 및 시 세계를 통해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徐俯의 생애 및 시대 배경

서부의 부친 徐禧(1043~1082)는 黃庭堅의 사촌형이 되므로 서부와 황정견은 숙질관계이다. 서희는 熙寧(1068~1077) 초 王安石이 정권을 잡고 新法을 행할 때, <治策> 24편을 지어서 神宗에게 헌납하여 布衣의 신분으로 鎭安節度推官, 中書戶房習學公事를 맡았다. 그 후 변경 지역 永樂에 성을 쌓아 요새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고, 西夏의 침입으로 성이 함락되자 이 여파로 서희 역시 죽었다. 永樂에서의 전쟁실패는 新·舊 당쟁이 전환되는 중요한 작용을 하여 왕안석의 신법운동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舊法黨에 속한 蘇軾이나 蘇轍은 서희와 呂惠卿 등이 結黨하여 永樂의 참패

1) 송용준·오태석·이치수 공저, ≪宋詩史≫, 역락, 2004.
2) 周忠偉, <徐俯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姚大勇, <論徐俯在宋南渡前後詩壇的意義>, ≪九江師專學報≫, 第1期, 2000.
賀小敏, <從南宋詩話和書畫題跋看江西詩人徐俯的詩法>, ≪人力資源管理≫, 第1期, 2015.
韋海英, ≪江西詩派諸家考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柳詠莉, <豫章詩社研究>, 曲阜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吳肖丹, <豫章詩社成員新考>, ≪九江學院學報≫, 第3期, 2010.

www.kci.go.kr

를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서희를 '狂生'에 비유하기도 했다. 서희가 사망했을 당시 서부의 나이는 겨우 8세였으나 특전이 주어져 조정으로부터 通直郎에 제수되었다. 서부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지어 황정견은 5명의 외가 조카 중에 서부를 가장 중시했고, 13세 때 <紅梅>詩로 蘇軾의 칭찬을 받았다. 16세 때 呂惠卿의 조카에게 장가들었고, 이 시기의 그는 부친에 대한 蘇軾의 부정적인 평가로 자극을 받아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독서하고 학문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황정견은 생전에 서부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어 독서 및 作詩, 修身과 천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 지도했다. 그는 서부에게 독서는 반드시 한 마디 한 구절에서 이미 지나간 일을 스스로 강구해야 고인이 심혈을 기울였던 곳을 볼 수 있으며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고 했다.[3] 또 경전을 공부할 때에는 스스로 그 본성을 탐구하고, 행동거지나 언행에 있어 일일이 고인을 따라야, 말이나 행동을 선택할 필요 없이 마음 따라 스스로 행하여도 도리에 맞고 법도에 합당하다고 했다.[4] 그리고 經學을 반드시 정밀하게 연구하고 古人이 말한 관건을 안 이후에 책에서 전한 그 취지를 알게 되어 자신의 방법 내에서 世情을 볼 수 있다고 했다.[5] 이것으로 보아 서부의 젊은 시절은 황정견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元祐黨禁의 시국이었을 때 강서시파의 여러 시인들은 부득이 화를 피하기 위해 歸隱을 택한 경우가 많았는데, 서부 역시 昭聖 연간(1094~1098)에 관리직을 그만두었고, 元符 원년(1098) 서부가 24살 되던 해에 고향에

3) "讀書須一言一句, 自求已事, 方見古人用心處, 如此則不虛用功."(黃庭堅, ≪黃庭堅全集·與徐甥師川≫ 권2, 四川大學出版社, 2001, 485쪽)

4) "須治經, 自探其本, 行止語默, 一一規摹古人. 至於口無擇言, 身無擇行, 乃可師心自行耳."(黃庭堅, ≪黃庭堅全集·與徐師川書≫ 권3, 四川大學出版社, 2001, 1868쪽)

5) "須精治一經, 知古人闊捩子, 然後所見書傳知其指趣, 觀世故在吾術內."(王正德, ≪餘師録≫ 권2, 吳文治, ≪宋詩話全編≫ 권6, 鳳凰出版傳媒集團, 2006, 6157쪽)

www.kci.go.kr

기근이 들어서 洪州를 떠나 장인의 거주지인 舒州로 왔다가 崇寧 연간(1102~1106)에 泰州로 돌아왔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고향으로 돌아와 南昌에 閑居하였고, 大觀 4년(1110)에 서부는 洪芻, 洪炎, 潘淳 등과 남창에서 詩社를 결성했다. 그는 부친에 대한 소식의 가혹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소식과 황정견의 학문을 깊이 받아들이고, 二程의 理學에 훈도되어 경학을 공부하며 지조와 절개를 연마하면서 詩文도 연구하는 한편 元祐문화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는 일생의 전반기를 시와 음주를 스스로 즐기고 강남의 산천을 돌아다니며 40년간을 祠祿으로 먹고 살았다.[6] 이와 같이 서부가 한적한 생활을 할 때 그의 문학예술은 오히려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大觀과 政和 연간에 豫章詩社를 결성하게 되었고, 황정견 시학의 계승자로 인식되어 江西詩壇의 영수가 되었다.

宣和 5년(1123) 서부 나이 49세 때 다시 벼슬길에 들어서 吉州(지금 江西 吉安)의 通判이 되었으나 곧 그만두었다. 靖康 원년(1126)에 다시 부름을 받아 尙書員外郞에 제수되었으나 靖康의 亂으로 徽宗과 欽宗이 북쪽으로 끌려가고 金人에 의해 張邦昌이 황제가 되었을 때, 다른 대신들은 다투어 僞帝에게 아첨하였지만 서부는 아부하지 않고 오히려 분개하여 관직을 그만두었고, 심지어 조정의 대신 앞에서 일부러 그의 노비를 '昌奴'라고 부르며 황제의 이름을 避諱하지 않아 나라를 훔친 것에 대한 분노와 멸시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7]

남송 建炎 3년(1129)에 서부가 兵亂으로 太湖(江蘇省 남부)유역과 廣中 등을 유랑할 때, 고종은 황정견의 문집에서 서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뿐만 아니라 靖康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절개를 지킨 그의 행동을 들었던 터라 꽤 호감을 가졌고, 당시 胡直儒나 汪藻도 義를 행하고

6) "一向以詩酒自娛, 放浪江南山川間, 食祠祿者四十年."(王明清, ≪王明清詩話≫, 吳文治, 같은 책, 6084쪽)

7) "師川獨不拜庭下, 持其用事之臣, 大呼號慟, 卒不自汙, 掛冠以去."(같은 책, 6084쪽), "買一婢子名之曰, '昌奴', 遇朝士至即呼前驅使之."(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録≫ 권3, 文淵閣 ≪四庫全書≫本)

www.kci.go.kr

문장이 뛰어난 서부를 여러 차례 추천했었다.[8] 마침 서부가 福建을 경유하여 臨安에 도착했을 때, 고종은 그에게 進士 벼슬을 내려주었다. 서부는 言職을 맡으면서 이전에 절개를 지켰던 그 성격대로 용감하게 言事를 펼치게 되는데, 권세에 빌붙어 결국 북송을 패망에 이르게 한 王安中, 薛昂, 汪伯彦 등에게 책임을 물어 이들을 탄핵했다. 당시 서부의 直言은 변경지역을 자유로이 드나들도록 개방하게 한 武人들의 횡포를 고발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누명을 쓴 元祐黨人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蔡京 등에 의해 만들어진 元祐黨禍의 진상을 가차 없이 제기한 것이었다. 서부의 이와 같은 행보로 士林들은 그를 존경하였고, 남송초기 시단에서 그는 꽤 영향력이 있는 시인이 되었던 것이다.

南宋을 건립한 高宗이 '最愛元祐'를 표방하면서 원우 인재들의 가치를 인정한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서부의 벼슬길은 꽤 순조로워 59세 때 右諫議大夫와 翰林學士를 겸하였고, 머지않아 端明殿學士, 簽書樞密院事로 바뀌었으며, 소흥 4년(1134)에 參知政事가 되었다. 고종은 서부를 정중하게 대우하고 금띠를 하사하는 등 특별히 그를 총애했다. 당시 서부의 정치적인 입지는 최고였으나, 또 한편으론 때때로 동료를 무시하거나 呂頤浩와 권력을 다투는 등의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소흥 4년 湖北의 襄陽이 함락되었을 때, 趙鼎은 收復을 주장하며 岳飛를 등용하자고 했지만 서부는 그 의견을 반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일을 이루지 못했고, 서부는 그 자리를 그만두고 臨安府 洞霄宮에 임명되었다. 소흥 9년(1139)에 信州의 지주가 되었다가 소흥 11년 신주에서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Ⅲ. 徐俯와 豫章詩社

徽宗의 大觀·政和 연간에 서부는 豫章[9]에서 詩社를 결성하였다. 주요

8) "胡直孺在經筵稱其行義文采, 汪藻在翰苑又薦之.....聞其人在靖康中立節可嘉." (李心傳, 같은 책, 권51, 文淵閣 ≪四庫全書≫本)

www.kci.go.kr

구성원은 서부를 비롯하여 洪芻、洪炎 등 대체로 <江西詩社宗派圖>에 속해 있어서 예장시사와 강서시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 시기인 崇寧(1102~1106) 연간에는 문단이 쇠퇴기에 있었는데, 이는 元祐黨禁과 관련이 있다. 당시 조정에서 '元祐黨籍碑'를 설립하여 文彦博, 蘇軾, 黃庭堅 등 200여 명을 '奸黨'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典籍이나 詩文을 금지했고, 黨籍碑를 확대하여 洪羽, 洪芻 등도 그 속에 넣어 강서시인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또 대문호였던 蘇軾이 1101년에, 江西詩派를 창도했던 黃庭堅이 1105년에 세상을 떠나 송대 문단은 지도자가 없었다.

大觀(1107~1110) 연간에 정세가 바뀌면서 黨禁이 느슨해지자 강서시인의 교유도 꽤 번성하게 되어 洪芻와 李彭은 한때 臨川에 살면서 활발하게 교유했고, 1109년 이후 강서시인의 활동이 임천에서 南昌으로 옮겨지면서 남창에 있던 서부와 더불어 이들의 詩歌 창작도 차츰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이들 주위로 많은 시인이 모여들어 창화활동이 매우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豫章詩社이다. 현존하는 홍추의 <同師川商老追凉徐賢亭>, <同蘇伯固游東山寺>, 이팽의 <奉同伯固駒甫師川聖功養直及阿虎尋春因賦問柳尋花到野亭分得野字>, 汪藻의 <次韻洪駒父集東山> 등은 모두 시사에서 창화한 작품이다. 특히 大觀 庚寅(1110)과 政和 辛卯(1111)년에 洪芻、洪炎、蘇堅、蘇庠、向子諲、張元幹、潘淳、汪藻、呂本中 등이 예장에서 활발히 교유하고 詩歌를 唱和하였으며, 張元幹은 서부에게 句法을 물었다.[10] 서부는 당시 시인들과의 교분이 매우 넓어 위에 열거한 시인 외에 洪朋, 李彭, 曾幾, 韓駒, 晁說之, 李光, 釋德洪, 陳瓘 등, 강서시파 시인을 포함하여 강서시파 외의 시인과도 창화하였다.[11] 당시 예장시

9) 豫章은 중국 漢나라 때 현재의 江西省에 두었던 郡인데, 그 중심은 南昌市에 있다. 따라서 南昌의 별칭으로 豫章이라 부른다.

10) "往在豫章, 問句法於東湖先生徐師川, 是時洪芻駒父, 弟琰玉父, 蘇堅伯固, 子庠養直, 潘淳子眞, 呂本中居仁, 汪藻彦章, 向子諲伯恭, 爲同社詩酒之樂予既冠矣. 亦獲攘臂其間, 大觀庚寅、辛卯歲也."(張元幹, ≪蘆川歸來集·蘇養直詩帖跋尾≫ 권9, 文淵閣 ≪四庫全書≫本)

11) 姚大勇, <論徐俯在宋南渡前後詩壇的意義>, ≪九江師專學報≫, 第1期, 2000 참조.

www.kci.go.kr

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청·장년층이었고, 남송초기 시단을 형성한 중요한 인물들, 가령 여본중, 증기, 홍염, 왕조, 한구 등이 이미 이 시사에 있었다. 여기서 남송초기 시단 상황을 대략 살펴보면, 북송의 멸망으로 中原의 사대부들이 대거 南渡하면서 창작 중심이 남쪽 지역에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 남송초기 시단은 크게 江西·閩中·浙江시인군으로 형성되었고, 그 중 江西는 남송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온상지였다. 江西詩派는 황정견과 진사도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中小詩人群을 형성하여 시단의 주력세력으로 활약하였고, 예장시사의 구성원은 대부분 강서시파 시인들이었다.

서부가 비록 소식과 황정견만큼 명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여본중, 증기, 진여의, 장원간 보다는 비교적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황이 죽은 후 한동안 시단의 지주로 인식되었다. 당시 장원간이나 왕언장 등도 作詩의 句法을 서부에게 배웠다고 하였다.[12] 더욱이 서부는 소년시절부터 황정견의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황정견은 서부의 시를 보고 “말이 모두 바른 것에 가깝다.(辭皆爾雅)”, “규모가 원대하다.(規模遠大)”라고 하면서 소식과 진관, 진사도 등이 죽은 후에 조카 서부가 쇠퇴해가는 추세에 砥柱가 된다고 극찬했다.[13] 때문에 문인들 심중에는 그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였다. 서부는 예장시사의 主盟으로 떠받들어졌고, 그를 중심으로 南渡 후에 예장시사 성원들은 高宗의 ‘最愛元祐’라는 기치 아래 송대 詩壇의 주류가 되었다.[14] 때문에 강서시파의 발전에서 서부를 領袖로 한 豫章詩社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시 시단에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장시사의 성원들은 비교적 비슷한 문학주장을 했고, 창화활동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대량의 작품도 창작했

12) “汪彦章爲豫章幕官.....問師川曰作詩法門當如何入,.....作詩句法得之師川.”(曾敏行, ≪獨醒雜志≫ 권4, 吳文治, 앞의 책, 권6, 5736쪽)

13) “庭堅頓首, 每見賢士大夫及林下得意人, 言師川言行之美, 未嘗不歎息也, 所寄詩, 正忙時讀數過, 辭皆爾雅, 意皆有所屬, 規模遠大. 自東坡、秦少游、陳履常之死, 常恐斯文之將墜, 不意復得吾甥, 眞頹波之砥柱也.”(黃庭堅, <與徐師川書>, 앞의 책, 권2, 480쪽)

14) 柳詠莉, <豫章詩社研究>, 曲阜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4~5쪽 참조.

www.kci.go.kr

다. 그리고 장기간동안 지속되었고 시사에 참여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들의 활동이 다소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시사를 떠나고 때로는 이 시사에서 활동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문단의 큰 지도자가 없었을 때, 서부를 중심으로 한 예장시사의 출현은 송대 詩社 발전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했다.

Ⅳ. 徐俯의 詩論

徐俯의 詩集은 ≪宋史≫ 본전에 6권 있다고 기록되었고,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詩集類 下≫ 권20에 ≪東湖集≫ 3권이 수록되었다고 했으나 지금 모두 실전되었다. 宋末·元初의 方回는 서부의 ≪東湖居士集≫ 3권 중에 上권은 古詩, 中권은 5言近體, 下권은 7言近體라고 했다. 현존하진 않지만 서부 시집의 대략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송대 陳思가 편집한 ≪兩宋名賢小集≫ 권114에 ≪東湖居士集≫ 1권 및 宋人의 문집과 筆記, 詩話 중에 약간의 단편과 斷句가 세상에 전해진다. ≪全宋詩≫ 권24冊을 살펴보면, 그의 시 작품 46首와 60여개의 斷句가 수록되어 있다.

1. 江西詩學의 계승

江西詩派는 北宋末에서 南宋初 사이에 杜甫를 祖宗으로 삼으며 대체로 黃庭堅, 陳師道, 陳與義 등의 시적 지취와 방향을 같이했던 당시 詩壇의 시인을 일컫는다.[15] 이 시단은 중국 문학사상 정식 명칭이 있는 宋代詩歌 流派로 여본중의 <江西詩社宗派圖>에 황정견을 중심으로 하여 25인의 시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徐俯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강서시파의 宗朝로 추앙받는 황정견은 '以俗爲雅, 以故爲新'을 추구하고 俗됨을 거부

15) 송용준·오태석·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544쪽 참조.

www.kci.go.kr

하며 '字字由來處'를 강조하였고, 구체적인 作詩방법, 즉 古語의 활용과 煉字煉句, 對仗의 변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 시파의 또 하나 중심축인 陳師道 역시 황정견을 배워 詩歌 주장이나 창작면에서 유사함을 보이지만, 추구하는 詩風이 똑같지는 않다. 황정견은 生新·奇崛한 시풍을 추구했고, 진사도는 '學詩如學仙, 時至骨自換'을 주장하고 簡古·瘦硬한 시풍을 추구했다. 이들의 시가이론이나 시풍이 강서시파 후학들에게 전수되었고, 徐俯의 초기 詩風 또한 黃·陳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황정견의 시가이론 중 가장 유명한 말이 '換骨奪胎, 點鐵成金'인데, 바로 前人의 말이나 뜻을 계승하는 방법으로, 즉 전인이 남긴 뛰어난 점을 보유한 후에 창작에 있어 '以故爲新'하는 것이었다. 徐俯 역시 전인을 모범으로 삼아 江西詩學이 강조한 '字字由來處'를 추구하고 이를 새롭게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 흔적을 보자.

서 부 : 細落李花那可數, 떨어진 오얏꽃 하나하나 어찌 헤아릴 수 있는가,
偶行芳草步應遲. 향기로운 풀과 길동무하니 걸음이 더디다네.

왕안석 : 細數落花因坐久, 하나하나 떨어진 꽃잎 세느라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고,
緩尋芳草得歸遲. 느릿느릿 향기로운 풀 찾느라 늦게 돌아왔네.

위의 예문은 서부가 왕안석의 시 <北山>의 詩句를 모방한 것이고,

서 부 : 芙蓉漫漫疑無路, 연꽃이 끝없이 펼쳐져 길이 없는 듯하나,
楊柳肅肅獨廢門. 수양버들 살랑살랑 날리는 그곳만 문이 닫혀 있네.

유 위 : 遥知楊柳是門處, 멀리 수양버들 있는 곳이 대문임을 알겠는데,
似隔芙蓉無路通. 연꽃으로 가로막혀 통하는 길 없는 것 같네.

왕안석 : 漫漫芙蓉難覓路, 끝없이 펼쳐진 연꽃에 길 찾기 어려운데,
肅肅楊柳獨知門. 살랑살랑 수양버들 흩날리는 그곳만이 대문임을

www.kci.go.kr

알겠네.

이것은 唐代 劉威의 <遊東湖黃處士園林>과 王安石의 詩句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부는 황정견의 '奪胎'[16] 이론대로 고인의 詩意를 탈취하여 자신의 詩意로 새롭게 변화하여 훨씬 더 정제되고 유려하게 묘사했다. 이것은 물론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 뜻을 바꾼 것에 속한다. 서부의 초기 詩風은 이처럼 강서시파 시학의 특징이 많이 보인다. "平生功名心, 夜窗短檠燈(평생 공을 세워 떨치려는 마음, 한밤중 창문에 비친 짧은 촛대 등불)" 이 斷句 역시 황정견의 風味와 같았기 때문에 그의 칭찬을 받았던 것이다.

2. 法度와 情趣 중시

作詩의 법도에 관하여 서부는 章法과 句法을 중시하여 일찍이 사람들에게 作詩는 머리와 꼬리가 없어야 하고, 첫 번째 구절로 되돌아오는 것이 가장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17] 또 詩文의 字句도 고심하여 지었는데, 예를 들어 서부는 강가를 걷다가 기러기를 보고 "沙邊眞見雁(모래 해변에서 뚜렷이 기러기를 보고)"이라 짓고 오랜 세월이 지나 "雲外醉觀星(구름 너머

16) 周裕鍇의 ≪宋代詩學通論≫에 의하면, '奪胎'의 '胎'는 영어로 'conception(수태와 개념)'이라는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황정견의 胎는 이것과 꽤 결합되어 있는데, 즉 conception이라는 이중 의미의 연계선상 위에 胎는 시 속의 뜻(意)이 된다. 도교에서 말하는 奪胎는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타인의 胎를 빼앗아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평범한 태(凡胎)를 벗어 신선이 되는 것이다. 황정견의 奪胎는 '그 뜻을 엿보고 들어가 그것을 형용하는(窺入其意而形容之)' 것이므로 태는 前人의 태이지 자신의 凡胎는 아니다. 결국 탈태의 은유적 의미는 前人의 시의를 탈취하여 자신의 詩意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형상화시켜서 완성하는 것이다.(周裕鍇 著, ≪宋代詩學通論≫, 巴蜀書社, 1997, 189쪽 참조)

17) "作詩要當無首無尾."(吳可, ≪藏海詩話≫, 吳文治, 앞의 책, 권6, 5545쪽) "作詩回頭一句最爲難道."(阮閱, ≪詩話總龜後集≫ 권20, 吳文治, 앞의 책, 권2, 1989쪽)

www.kci.go.kr

취하여 별을 바라보네)"으로 對를 이루었다. '醒醉'로 '眞贋'을 대비한 것이 지극히 정교하다고 曾季貍가 평하였다.[18] 이 詩句는 借對[19] 수사법을 쓴 것으로 '眞贋'은 '眞贋(진짜와 가짜)'의 뜻이 있기 때문에 '醒醉(술 깸과 술 취함)'로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星'은 '醒醉'의 '醒'의 의미를 빌린 것이다. 증계리는 또 사람의 성씨로 用事를 한 경우 서부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與張元幹> 시에 "詩如雲態度, 人似柳風流"[20]는 장원간의 시와 인격을 은근히 暗用하여 佳句라는 평을 받았다.[21] "早棄魚須伴我閑"[22] 또한 '借代'를 잘 활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서부의 작시의 법도는 황정견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나 시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여 전고와 수사법을 잘 활용했으므로, 詩句가 잘 點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서시파의 후학들이 황정견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점차 폐단이 드러날 즈음에 서부는 作詩에 있어서 江西만을 취하지 않았고, 황정견의 계승자라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宗派圖>에 그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에도 "내가 어째서 거기에 들어있는가?"[23] 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루는 서부를 만나러 온 손님이 그에게 배움의 연원이 황정견에게서 비롯된 것에 열렬히 칭송하자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재주가 있음을 자부하였다. 물론 서부는 외숙인 황정견의 영향을 부인하진 않았으나[24] 그렇다고 덮어놓고 황정견만을 尊崇하진 않았고

18) "以'醒醉'對'眞贋', 極工"(曾季貍, 앞의 책, 吳文治, 같은 책, 권3, 2638쪽)

19) 詩句의 對仗을 만들 때,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다른 뜻을 가지고 대가 되는 위치에 있는 글자와 대비시키면 정교한 문장이 되는 것을 차대라고 한다.(왕력 저·송용준 역, ≪중국시율학≫, 소명출판, 2005, 409쪽 참조)

20) "시는 구름이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요, 사람은 버드나무처럼 풍류가 있네."

21) 曾季貍, 앞의 책, 吳文治, 같은 책, 권3, 2630쪽.

22) "일찍 관직을 버리고 나와 한가로움을 짝하자꾸나." 魚須 : 옛날 관원이 임금을 알현하면서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던 패를 말한다.

23) "吾乃居行間乎?"(趙彦衛, ≪新校雲麓漫鈔≫ 권14, 世界書局, 民國48[1959], 199쪽)

24) "公視山谷爲外家, 晩年欲自立名世, 客有贊見, 盛稱淵源所自, 公讀之不樂, 答以小啟曰, 涪翁之妙 天下, 君其問諸水濵, 斯道之大域中, 我獨知之濠上."(周煇,

www.kci.go.kr

그의 시를 선별해서 따르거나 때로는 비평을 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황정견이 제창한 '規摹古人'[25]과 작시에서 요구한 '無一字無來處'를 충실히 배우고 따랐으나 나중에는 '作詩自立意, 不可蹈襲前人'[26]이라 하며 자신의 學詩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만년에 그의 '自立名世'의 생각은 황정견이 후학에게 요구한 '自成一家始逼眞'[27]과 상통한다. 남송초기 시인 중 몇 사람이 이 이론을 계승했는데, 서부는 '中的'을 강구하였고, 한구는 '飽參'으로 시를 비유했으며, 여본중은 '活法'설을 주장했다. 이들이 각기 말하는 것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배운 뒤에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한다(悟入)는 것이다.[28] 이것이 '自成一家'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므로 강서시파 시인의 풍격이 모두 같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만년에 서부의 시풍은 淸新함과 平淡함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서부는 한편으론 황정견의 시 이론을 계승하면서 또 한편으론 황정견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전통을 계승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황정견과 두보만을 법도로 삼지 않았다. 曾季貍의 ≪艇齋詩話≫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 동호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근래 사람들은 시를 배울 때 소식과 황정견에서 그치고, 또 그 위로 두보를 따르는 자는 있지만 六朝 시인에 대해서는 대개 살펴보는 이가 없다. 만약 시를 배울 때 ≪文選≫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큰 수레에 말을 연결하는 멍에(輗)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軏)가 없는 것과 같다." 서부는 일찍이 이글을 적어 나에게 주고 또 ≪文

≪淸波雜志≫ 권5), "師川以才氣自負, 少肯降志於人, 常言, 吾於魯直爲舅氏, 然不免有所切議."(朱子, ≪宋名臣言行錄後集≫ 권13)(文淵閣 ≪四庫全書≫本)

25) "고인을 따르다."(黃庭堅, <與徐師川書>, 앞의 책, 권3, 1868쪽)

26) "作詩는 스스로 뜻(意)을 세워야지 前人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胡仔, ≪苕溪漁隱叢話≫ (上), 世界書局, 民國65[1976], 240쪽)

27) "스스로 一家를 이루어야 비로소 참다운 경지에 이를 수 있다."(黃庭堅, <題樂毅論後>, 앞의 책, 권2, 712쪽)

28) "東湖論詩說中的, 東萊論詩說活法, 子蒼論詩說飽參, 入處虽不同, 然其實皆一關捩, 要知非悟入不可."(曾季貍, ≪艇齋詩話≫, 吳文治, 앞의 책, 권3, 2635쪽)

www.kci.go.kr

選≫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하였다. 근래의 시론가는 ≪문선≫ 시를 배우도록 권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서부만 그러하니 이것이 그가 뛰어난 까닭이다.(近世人學詩, 止於蘇黃, 又其上則有及老杜者, 至六朝詩人, 皆無人窺見. 若學詩而不知有≪選≫詩, 是大車無輗, 小車無軏. 東湖嘗書此以遺予, 且多勸讀≪選≫詩. 近世論詩, 未有令人學≪選≫詩, 惟東湖獨然, 此所以高妙.)[29]

서부는 한두 사람의 시인을 배우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學詩의 범위에 있어서 소식과 황정견 및 唐代를 거슬러 올라가 六朝에까지 미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師法으로 삼는 대상은 다른 강서시파 시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作詩의 제재 방면에서도 서부는 공허한 망상보다 실제를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물묘사를 중시했다. 생활이나 자연에서 詩材를 찾는 창작태도는 일률적으로 前人의 書卷 문자에서 詩材를 강구한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汪彦章과 서부의 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汪彦章이 豫章의 막료로 있을 때 하루는 南樓에서 서부를 만나 묻기를, "作詩의 法門은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서부는 "이 자리에서 쓰이는 술잔과 과일, 야채, 눈에 닿는 모든 것이 모두 시이다. 그대는 다만 뜻으로 취사 안배하여 법규를 따라 외물에 촉발되어 감응된 그것을 장악하면 모두 마땅히 사람의 생각대로 되니, 절대 문을 닫고 눈을 감아 허공에 새기거나 실제를 망각한 생각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汪彦章爲豫章幕官. 一日, 會徐師川於南樓, 問師川曰, "作詩法門當如何入?", 師川答曰,"即此席間杯棬果蔬使令以至目力所及, 皆詩也. 君但以意剪裁之, 馳驟約束, 觸類而長, 皆當如人意, 切不可閉門合目, 作鐫空忘實之想也.")[30]

이른바 '이 자리에서 쓰이는 술잔과 과일, 야채, 눈에 닿는 모든 것이

29) 曾季貍, 같은 책, 吳文治, 같은 책, 권3, 2636쪽 참조.
30) 曾敏行, 앞의 책, 권4, 吳文治, 앞의 책, 권6, 5736쪽.

www.kci.go.kr

모두 시이다.'라고 하는 것은 '作詩'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나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시상이 떠오른 이후에는 반드시 '뜻으로 취사 안배하여 법규를 따라 외물에 촉발되어 감응된 그것을 장악'해야 한다고 했으니, 시의 구성이나 안배를 이 '뜻(意)'으로 통괄한 셈이다. 여기서 말한 '뜻(意)'은 詩歌의 新意이고, 이는 시인 주변의 경물이나 사물로부터 촉발된 의취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서부의 이런 논리는 황정견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황정견은 詩文은 억지로 끌어다가 지을 수 없고 경물에 대한 경험이나 감흥이 일어날 때 저절로 공교로워진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大意'를 세워야하고 長篇은 반드시 몇 번의 곡절을 겪은 뒤에야 문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31] 여기서 말한 '境'은 물론 아주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시적인 意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부도 "반드시 이런 경물이 있는 후에야 이 詩句가 있다. 만일 이런 경물 없이 짓는다면, 이것은 헛된 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32]고 보았다. 객관적인 바깥 경물에 詩想이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의론적이고 설리적인 뜻을 서술한 것에 치우친 강서시파의 작품과는 다르다. 立意가 있는 작품은 중국전통 문예이론인 意境을 창조할 수 있고, 또 경물로부터 나왔으므로 정취가 풍부하다. 때문에 바짝 마르고 생경하며 학문이 많이 쌓인 작품과는 다르다. 徐俯는 作詩에 法度를 강구하면서도 情趣를 중시했다. 그는 일찍이 句法을 묻는 이에게 "사람들은 봄이 끝났다고 말하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玄武湖를 향해 걸어가 보아라, 菰葉이 이렇게나 많이 자라나 있지."[33]라고 하였다. 그는 시의 구법이 詩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31) "山谷論詩文不可鑿空強作, 待境而生, 便自工耳, 每作一篇, 先立大意, 長篇須曲折三致意乃成章耳."(曾慥 編, ≪王直方詩話≫, 吳文治, 같은 책, 권2, 1143~1144쪽)

32) "必有是景, 然後有是句, 若無是境而作, 卽謂之脫空詩, 不足貴."(郭紹虞, ≪宋詩話輯佚≫(上), 4쪽)

33) "余從師川問句法, 師川擧近詩云, 人言春事已, 我言未遽央, 試向後湖去, 菰葉如許長."(吳聿, ≪觀林詩話≫, 吳文治, 앞의 책, 권3, 2739쪽)

www.kci.go.kr

시인의 눈에 있기 때문에 시상이 촉발하고 흥취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았다. 봄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끝났으나 봄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현무호의 고엽이 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분명 법도를 중시하는 강서시파의 시론과 다르다.

3. '中的'의 강조

曾季貍의 ≪艇齋詩話≫에 "徐俯는 시를 논할 때 '中的'을 말하였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34]라고 한 부분이 있다. 서부가 詩法에서 '중적'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中的'이라는 말은 嚴有翼의 ≪藝苑雌黃≫에 보인다. 徽宗이 哲宗을 위해 지은 挽詞 중에 "北極은 곤룡포(龍袞)를 나란히 하고, 西風은 기러기 행렬(雁行)을 갈라놓았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雁行'으로 '龍袞'을 대비한 말의 뜻이 '中的'하다고 논평했던 것이다.[35] 휘종이 두보의 詩句 "五聖聯袞龍, 千官列雁行"[36]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적절하게 표현한 이것이 바로 중적이라고 보았다. '中的'은 禪宗과 관련된 ≪景德傳燈錄≫, ≪碧巖錄≫ 등에도 보인다. 禪宗에서 언어는 종종 箭鋒(화살 끝)으로 비유되고 禪旨는 표적이 되므로, 언어, 즉 그 말을 통해 깨달아 얻는 것을 禪旨가 中的(표적에 명중되다)되었다고 한다. 서부는 바로 ≪碧巖錄≫의 저자 克勤禪師의 법맥을 계승했으므로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中的'이란 바로 딱 알맞은 곳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서부의 '중적'설에 대한 유래는 선종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周裕鍇는 서부의 '中的'설은 學詩로 비유하자면 마땅히 前人의 詩句에 대한 언어분석을 통

34) "東湖論詩說中的.....要知非悟入不可."(曾季貍, 앞의 책, 吳文治, 같은 책, 권3, 2635쪽)

35) "徽宗嘗制哲廟挽詩, 用此意作一聯云: 北極聯龍袞, 西風拆鴈行, 亦以'鴈行'對'龍袞'然語意中的."(胡仔, 앞의 책, (下), 546쪽)

36) "五聖은 곤룡포를 나란히 하고, 千官은 기러기 행렬로 벌여 있네."(<冬日洛城北謁玄元皇帝廟>)

www.kci.go.kr

해 시 예술의 참뜻을 깨달아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37] 결국 시를 배우기 위해서는 前人의 典籍을 多讀하고 창작의 法度를 파악하여 작품 자체에 적합한 用意 및 정확한 用語나 글자를 운용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詩句에 대한 언어분석을 통해 시 예술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 뜻(意)은 앞에서 말했듯이 시의 '新意'이고 시인이 주변 경물이나 사물에 의해 촉발된 된 意趣인 것이다. 즉, 시인이 경물을 접하여 시를 지을 때 그 中的의 뜻을 얻어 이것으로 시를 구상하고 안배한다. 이것이 바로 서부가 주장하는 作詩의 法門인 셈이다. 결국 서부의 '中的'은 깨달음에서 나온 作詩의 法門을 말하고, 공부와 깨달음을 통해 妙悟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Ⅴ. 徐俯 詩의 내용과 風格

앞에서 서술했듯이 徐俯의 문집이 실전되어 현존하는 시가 많지는 않다. ≪全宋詩≫에 실린 그의 시 46수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古詩 12수, 律詩 13수, 絶句 21수로 분류되는데, 배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체제를 골고루 창작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수나 자연 경물을 노래하거나 어느 지역을 유람하여 지은 것, 그림에 제한 시, 칭송하거나 次韻한 것 등 다양하게 지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題畫와 경물에 관한 시가 비교적 많다.

서부는 詩作에 있어 단순히 法度 및 기교의 새로움만 추구한 것이 아니다. 강서시파 중 어떤 시인들이 전인의 典籍이나 문자에서 詩材를 찾으려 한 것과 달리 서부의 작품에는 광활한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단순히 경물을 읊조리거나 시인들과 창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세태를 반영하거나 현실에 대한 감정을 주입시켰다. <題顔魯公畫像>, <明皇夜游圖>, <李賀晩歸圖> 등을 분류하면 題畫詩이지만, 사실은 詠史詩이다.

37) 周裕鍇, ≪文字禪與宋代詩學≫, 高等教育出版社, 1998, 123쪽 참조.

www.kci.go.kr

비록 제재는 옛날에서 취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풍자한 것이다. <明皇夜游圖>를 보면,

歌吹開元曲, 開元시기 신곡을 노래하고,
鉛華天寶粧, 天寶시기 유행한 연지분으로 화장하네.
苑風翠袖冷, 정원에 바람 불어 비취빛 소매 서늘하고,
宮露赭袍光, 궁궐에 이슬 내려 붉은색 도포 반짝이네.
閨闥連閶闔, 여인의 방은 宮門으로 이어져 있고,
騕褭從驌驦, 적색의 준마는 驌驦馬를 따르네.
千門還欲曉, 대궐 안의 많은 문에 다시 새벽이 오려하니,
九陌乍聞香. 京城의 큰 길에서 잠시 향기를 맡네.

이것은 李生이 그린 <明皇夜游圖>를 보고 쓴 시로 唐 玄宗의 화려하고 사치스런 궁궐생활을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였다. 한 句도 의론적인 필체를 나열하거나 현 상황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당 현종의 고사를 빌어 북송 말 徽宗이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民力을 남용하고 연회를 즐기는 것을 풍자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鉛華·翠袖·閨闥·赭袍·騕褭 등의 詩語를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이미지를 묘사하였고, 마지막 구에 새벽부터 여인들이 단장하여 그 향기가 큰길까지 날리는 정경을 통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연회와 주색에만 빠져있는 현종의 모습을 통해 당시 군왕인 휘종을 풍자하였다. 섬세한 이미지, 화려한 색채감과 더불어 情景이 절묘하게 서로 융합되어 있다. <題顔魯公畫像>은 顔眞卿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절개를 칭찬한 것이고, <李賀晩歸圖>는 李賀가 벼슬길이 막히고 懷才不遇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 것이다. <雙廟>[38]는 '安史의 亂'이 일어났을 때 江淮의 睢陽을 지키기 위해 적군 수만 명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한 張巡과 許遠의 역사적 공적을 기리고, 동시에 이름은 중앙의 벼슬자리에 있으나(名在臺省中) 오히려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38) "開元天寶間, 袞袞見諸公, 不聞張與許, 名在臺省中."(≪全宋詩≫ 第24冊, 北京大學出版社, 1998, 15835쪽)

www.kci.go.kr

적에게 굴복하거나 무위도식하는 고관들을(袞袞諸公) 풍자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의 <題雙廟> 시에 "向使不死賊, 未必世能容"[39] 斷句가 있는데, 이것은 立意가 훨씬 더 새롭고 그 비극적인 사회를 더욱 심각하게 나타낸 것이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바뀌는 변혁을 몸소 겪은 서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민족의 절개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도 격분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時時傳破房, 日日問修門"[40]이나 "諸公宜努力, 荊棘已千村"[41] 등의 斷句를 보더라도 서부가 國事에 대해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백성을 곤경에서 구하고 잃어버린 땅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파악할 수 있다. '靖康의 變' 전·후를 직접 경험하고 南·北宋이 교체되는 특정 시기에 서부의 시 역시 당시 시대의 색채를 반영하여 결코 현실에 유리되지 않았다.

서부는 시 창작에 있어서 法度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취(情韻)를 매우 중시했다. 그의 題畫詩 <畫虎行爲吉州假守蘇公作>에 "옛날 내가 어리석고 어렸을 때, 선생은 왕안석의 시를 외우게 했다네. 지금의 노인에겐 新語가 없는데, 마침 廬山에 釋祖可가 있구나."[42]라고 한 부분이 있다. 서부가 王安石의 淸麗하고 우아한 시뿐만 아니라 석조가의 悠長하면서 정취가 있는 시를 마음에 들어 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서부는 晩唐詩를 높이 평가하여 일찍이 "왕안석은 唐人을 많이 배웠지만 그의 많은 시는 晩唐 시인의 시 한수보다 못하다."[43]고 했다. 서부의 <滕王閣>을 보면,

39) "만약 도적을 죽이지 못하면, 세상이 반드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
40) <聞捷>: "시시각각 집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고, 날마다 문짝을 수리했냐고 물어본다네."
41) 劉克莊의 ≪後村詩話前集≫ 권3 인용: "여러 사람이 마땅히 노력해야 하리니, 수많은 마을이 이미 고난을 겪었네."
42) "憶昔余頑少小時, 先生教誦荊公詩. 只今耆舊無新語, 賴有廬山病可師."(徐師川, <畫虎行爲吉州假守蘇公作>, 앞의 책, 第24冊, 15834쪽)
43) "荊公詩多學唐人, 然百首不如晩唐人一首."(曾季貍, 앞의 책, 吳文治, 앞의 책, 권3, 2633쪽)

www.kci.go.kr

一日君王造, 어느 하루를 군왕이 만들어서,
千年與客遊. 천년을 객과 더불어 노니네.
雲邊梅嶺出, 구름 끝엔 梅嶺山이 드러나고,
坐上贛江流. 앉은 자리 가에는 贛江이 흐르네.
日落廻飛鳥, 해저물녘 날던 새 돌아오는데,
煙深失釣舟. 안개 짙어 낚싯배는 길 잃었네.
蟬聲枯柳外, 매미소리 메마른 버드나무 너머 들려오고,
天地晩風秋. 천지는 저물녘에 가을바람 불어오네.

≪中國詩學史≫에서 이 시를 王維의 風神이 있지만, 高遠하고 아득한 가운데 오히려 쇠퇴한 기운이 드러나 그 자취가 晩唐에 가깝다고[44] 평한 것을 보면 그의 창작 경향이 어느 정도 唐詩, 특히 晩唐詩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본중의 ≪呂氏童蒙訓≫에서 서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백과 두보 이래로 古人의 詩法이 모두 폐하였지만, 오직 唐人 韋應物의 시는 六朝의 풍취가 있어서 가장 流麗하다고 했다.[45] 서부는 다른 사람들이 古談하다고 말한 위응물의 시 중 그 流麗함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시를 배움에 있어 육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길 원했기에 詩風 역시 六朝의 淸新·自然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周紫芝는 서부가 만년에 자연스럽게 얻은 詩句가 많다고 했고, 李彭은 서부의 시는 평담함에 이르고 지극히 궁리해서 어렵게 짓는 것을 반대했다고 했다.[46] 육유의 ≪老學庵筆記≫에 曾幾가 한 말을 보면,

서부는 왕안석의 "細數落花因坐久, 緩尋芳草得歸遲"[47]를 모방하여 "細

44) 陳伯海·蔣哲倫, ≪中國詩學史≫, 廈門 : 鷺江出版社, 2002, 163쪽 참조.
45) "呂氏, 童蒙訓云, 徐師川言, 人言蘇州詩, 多言其古淡, 乃是不知言蘇州詩, 自李杜以來, 古人詩法盡廢, 惟蘇州有六朝風致, 最爲流麗."(胡仔, 앞의 책, (上), 권15, 99쪽)
46) "師川暮年得句多出自然也"(周紫芝, ≪太倉稊米集·書老圃集後≫ 권66, 吳文治主編, 앞의 책, 권3, 2848쪽), "徐詩到平澹, 反自窮艱極"(李彭, ≪日涉園集·題洪駒父徐師川詩後≫ 권3, 文淵閣 ≪四庫全書≫本)

www.kci.go.kr

落李花那可數, 偶行芳草步應遲"[48]라 하였다. 처음엔 그 뜻을 몰랐으나 한참 있다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서부는 오로지 도연명을 배운 것이다. 도연명의 시는 모두 우연히 뜻을 기탁한 것이어서 외물에 머무르지 않는데, 가령 '悠然見南山' 같은 경우, 소식은 도연명이 결코 남산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 (왕안석의) '細數落花'와 '緩尋芳草'에 각별히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고쳤다고 했다.(徐師川擬荊公, "細數落花因坐久, 緩尋芳草得歸遲" 云, "細落李花那可數, 偶行芳草步應遲" 初不解其意, 久乃得之, 蓋師川專師淵明者也. 淵明之詩皆適然寓意而不留於物, 如, "悠然見南山" 東坡所以知其決非望南山也, 今云, '細數落花, 緩尋芳草' 留意甚矣, 故易之.)[49]

앞에서 열거한 예시들을 보면, 서부의 詩風은 만년에 전형적인 江西詩格을 벗어나 청아하고 자연스러우면서 沖淡한 풍으로 나아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戊午山澗對雪>을 보면,

雪中出去雪邊行, 눈 내리는 가운데 나가 눈길을 걸으니,
屋下吹來屋上平. 지붕 아래엔 불어오나 지붕 위엔 조용하네.
積得重重那許重, 겹겹이 쌓이니 그 얼마나 무거우며,
飛來片片又何輕. 흩날리듯 날려 오니 또 얼마나 가벼운지!
簷間日暖重爲雨, 처마 틈새 따스한 햇살에 재차 비가 되고,
林下風吹再落晴. 숲속으로 바람 불어 다시 날이 개었네.
表裏江山應更好, 안팎으로 강산이 응당 더욱 아름다워,
溪山已後不勝清. 溪山 이후 이보다 더 맑을 수 없구나.

서부의 "積得重重那許重, 飛來片片又何輕"은 황정견의 "夜聽疎疎還密密, 曉看整整復斜斜(밤에 소소하게 눈발 날리다 더 빽빽하게 날리는 소릴 듣

47) "하나하나 떨어진 꽃잎 세느라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고, 느릿느릿 향기로운 풀 찾느라 늦게 돌아왔네."
48) "떨어진 오얏꽃 하나하나 어찌 헤아릴 수 있는가, 우연히 향기로운 풀과 다니니 걸음이 더디다네."
49) ≪江西通志·雜記≫ 권160, 文淵閣 ≪四庫全書≫本.

www.kci.go.kr

고, 새벽녘에 가지런하다가 다시 비스듬히 쌓인 눈 보았네.)" 詩句를 운용하여 지었다. 이 시의 전반부는 비록 조탁하여 글자마다 推敲를 하고 황정견을 모방한 흔적이 있지만, 황정견보다 눈의 오묘함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 오는 정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고정되지 않는 눈'의 특징을 장악하여 다방면의 필치로 雪景을 자세히 담아냈다. 사물에 대한 세밀함과 字句의 淸新함, 유려한 정취가 강서시파의 瘦硬·苦澁한 풍미와 다르고 여운이 있으며 경쾌하다.

서부의 시가 세상에 많이 전해지진 않지만, 平易·自然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익히 알고 있는 <春日遊湖上>을 보면 다음과 같다.

雙飛燕子幾時回? 쌍쌍이 나는 제비는 언제 돌아오는가?
夾岸桃花蘸水開. 호숫가의 복사꽃은 물속에 잠겨 피어 있네.
春雨斷橋人不度, 봄비에 다리 끊겨 사람들 건너지 못하고,
小舟撐出柳陰來. 조각배는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노 저어 온다.

봄날 호숫가에서 노닐 때 보고 느낀 감정을 묘사했다. 이 시는 간결하면서도 정련된 필묵으로 봄날의 다양한 풍경 변화를 묘사했다. 봄비에 물이 불어난 아름다운 호숫가에 조각배만이 무성한 버드나무 그늘 사이로 나타난 모습을 그려내었다. 먼저 선명한 색감의 경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한 가운데, 시선은 위로 하늘을 나는 제비로부터 아래로 강물이 복사꽃 나무 밑까지 차오른 곳까지 이르렀고, 저만치 다가오는 조각배의 원근감이 역동적인 풍경화를 연상시킨다. 그 意境과 언어는 자연스럽고 유창하여 꾸민 흔적이 보이지 않고, 시 전체의 운치가 悠遠하고 봄날의 경쾌한 기운이 느껴진다. 황정견과 진사도의 奇峭·拗健이나 生澁·瘦硬과 다르게 시풍이 淸新하다.

서부의 시는 平淡·自然의 특징이 드러나지만 사실 고심하고 연마한 결과이다.[50] 서부 역시 前人의 "시가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쉬

50) 姚大勇, <論徐俯在宋南渡前後詩壇的意義>, ≪九江師專學報≫, 第1期, 2000 참조.

www.kci.go.kr

지 않는다."[51]는 전통을 계승했다. 때문에 그의 시는 결코 조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조탁의 흔적을 없애고 평이한 면모를 나타내려고 애쓴 것이다. <春日遊湖上> 역시 구성과 造詞, 用韻에 있어서 황정견의 <春近四絶句>[52]를 참고하여 지었지만, 황정견 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려하다. 또 서부는 경물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예를 들어 눈이 쌓인 모습을 '重重'으로, 눈이 날리는 모습을 '片片'으로, 매화를 "千秋寂寂無人看, 獨樹亭亭對客開."[53]라 하며 첩자를 사용하길 좋아했는데[54], 단순히 음률의 조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과 매화의 경쾌하고 고결한 특징을 완곡하게 잘 드러냈다. 그리고 시를 지을 때, 숫자로 對仗을 이루는 것을 좋아했다. 가장 유명한 것이 "一百五日寒食雨, 二十四番花信風."[55]으로 對仗이 아주 정교하면서도 소탈하고 자연스럽다. "山遠三峯出, 溪長二水流."[56]와"九派先將明月去, 三峯少爲白雲留."[57]는 산수를 묘사하면서 숫자를 사용한 것이 새롭고 필치가 호탕하고 飄逸하다. "沙邊眞見雁, 雲外醉觀星."[58]은 정교한 借對 수사법을 사용했지만, 그 경물은 담담하고 평이하게 체현되었다. 마치 "詩如雲態度, 人似柳風流."처럼 봄날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 모이고 흩어짐이 자유자재하고 자연에 임하는 태도로 시를 짓는 것이 서부의 이상적인 詩歌 境界였던 것이다. 사실 서부의 시가 완전히 평담하고 자연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는 法度를 추구하면서 또 정취를 중시

51) 두보의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중 "語不驚人死不休."
52) <春近四絶句>의 其一 : "閏後陽和臘裏回, 濛濛小雨暗樓臺, 柳條榆莢弄顔色, 便恐入簾雙燕來."
53) "긴 세월 적적하도록 보러 오는 사람 없고, 홀로 나무만이 꼿꼿이 솟아 객을 마주하여 피어있네"
54) "師川詩多愛句中叠字."(方回 選評·李慶甲 集評校點, ≪瀛奎律髓彙評≫(中), 上海古籍出版社, 2008, 890쪽)
55) "동지에서 105일째 한식날 비요, 스물 네 차례 花信風(꽃소식 전해 주는 바람)이라."
56) "먼 산에 세 봉우리 나타나고, 긴 강물에 두 물줄기 흐르네."
57) "九江에 앞서 장차 밝은 달 지나가고, 세 봉우리에 잠시 흰 구름 머무르네."
58) "모래 가에서 분명히 기러기 보고, 구름 너머 취하여 별 보네"

www.kci.go.kr

하였기에 시 작품이 비록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표현되었지만, 이는 시인의 궁리와 고심의 결과였던 셈이다. 서부가 만년에 평이함을 추구하면서 詩律이 다소 엉성하고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흘러 高宗은 그를 "만년에 李白을 배워 약간 거침없다."[59]고 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보면, 徐俯는 강서시파의 폐단을 벗어나기 위해 詩歌의 法度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취를 중시했다. 그래서 청아하고 유려한 시를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풍의 시를 지으려고 시도했었다. 따라서 그의 만년의 平易하고 淸新한 풍격은 기존 江西詩派 詩壇의 詩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Ⅵ. 나가는 말

이상으로 徐俯의 생애 및 예장시사를 통해 북송에서 남송으로 바뀌는 시기에 그의 역할을 살펴보았고, 서부의 시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남송초기 시단에서 그가 전형적인 江西詩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검토하였다. 위에서 논한 것을 간추려보면,

첫째, 강서시파의 일원이었던 서부는 大觀과 政和 연간에 豫章詩社를 결성하였고, 南渡한 후 서부를 중심으로 한 예장시사의 많은 시인들이 江西詩壇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유와 창화활동을 하여 남송초기에 주된 시단이 되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문단의 큰 대가가 없을 때, 예장시사의 출현은 宋代 詩社의 발전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고, 서부는 황정견 詩學의 계승자로 인식되어 남송초기에 꽤 영향력이 있는 시인이 되었다.

둘째, 徐俯의 초기 詩風은 강서시파 시학의 특징이 많이 보이지만, 강서시파의 폐단이 점차 드러날 즈음에 시 창작에 변화를 추구하였다.

서부는 作詩에 있어서 변화를 강구하여 전통을 계승하는 師承의 범위를

59) "晩年學李白, 稍放肆矣."(趙鼎, ≪忠正德文集≫ 권8, 文淵閣 ≪四庫全書≫本)

www.kci.go.kr

확장하였다. 즉, 한두 사람의 시인을 배우는 것에 반대하여 황정견과 두보 외에 소식과 唐代를 거슬러 올라가 육조에까지 미칠 것을 주장하였다. 作詩의 제재 방면에서도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나 감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경물묘사를 중시했다. 생활이나 자연에서 詩材를 찾는 창작태도는 강서시파 시인 중 일률적으로 前人의 書卷 문자에서 詩材를 강구한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셋째, 서부는 시 창작에 '中的'을 강조했다. '中的'을 學詩로 비유하면 前人의 詩句에 대한 언어분석을 통해 시 예술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다. 시 창작에 있어 시인이 경물에 촉발하여 시를 지을 때 뜻의 中的을 얻어 이 뜻으로 구상하고 안배하는 것이다. 결국 '中的'은 깨달음에서 나온 作詩의 法門을 의미한다.

넷째, 서부의 작품에는 경물을 읊조리거나 시인들과 창화활동을 한 것 외에 당시 시대의 색채를 반영하거나 풍자한 내용의 작품도 있었다. '靖康의 變'을 경험하고 북송에서 남송으로 바뀌는 변혁을 겪은 서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민족의 절개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도 격분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다섯째, 徐俯는 作詩에 法度를 강구하는 한편 情趣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는 서부의 창작경향이 江西詩學의 一路만 매진한 것이 아니라 유려하고 청신한 시풍을 지닌 六朝와 정취가 풍부한 晩唐詩도 함께 추구한 때문이다. 아울러 정취가 풍부한 경물묘사를 중시한 점도 그 이유가 된다. 그래서 만년에 그의 시는 淸新·自然한 시풍이 들어 있어 의론적이고 설리적인 뜻을 주로 묘사한 기존 강서시파의 瘦硬·苦澁한 풍미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도연명처럼 의식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平淡·自然이 아니라 고심과 연마의 결과인 셈이다.

여섯째, 徐俯는 북송에서 남송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시단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시학사상이나 시가풍격 또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띤다. 方回는 서부의 시율이 정밀하지 못하고 그의 시는 꽤 졸렬하다고 평가했으며, 강서시파에 있는 기이함이 없다고도 했다.[60] 이것으로 보았을 때, 서부가 기

www.kci.go.kr

존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강서시단에 유행했던 기존 시풍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의 六朝 및 晩唐風의 淸新하면서 婉麗한 색채는 江西詩派 詩壇의 詩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이후 野逸하면서 淸瘦한 永嘉四靈과 江湖詩派 시풍에 서막을 열었다. 따라서 서부는 남송초기 시단에서 전인을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할을 했다.

<References>

1. Chen Bohai·Jiang Zhelun, *History of Chinese Poetry*, Lu Jiang Press, 2002.
2. Fang Hui·Li Qingjia, *YingKuillůsui Collective Reviews*, Shanghai Ancient House, 2008.
3. Huang Tingjian, *HuangTingjianquanji : Complete Collection of Huang Tingjian*, Sichuan University Press, 2001.
4. Hu Zi, *TiaoXiYuYin Collective works*, The World Book Co, 1976, Taibei.
5. Liu Yongli, Studying on Yuzhang Poetry Group, Qufu Normal University Shuoshi Lunwen, 2014.
6. Song Yong-zhun·Oh Tae-suk·Lee Chi-soo, *History of Song Dynasty Poetry*, YiLe, 2004.
7. *Quansongshi : Complete poetry of the Song*, No.24v, PEKING UNIVERSITY PRESS, 1998.
8. Wang Li·Song Yong-zhun, *Prosody of Chinese Poetry*, Somyong Publishing Co, 2005.
9. Wei Haiying, *Jiangxi Shipai Zhujia Kaolun: Studying on Poets of*

60) "師川詩律疎濶.....其詩頗拙", "在江西派中無甚奇也"(方回 選評·李慶甲 集評校點, 앞의 책, (中), 816쪽, 889쪽)

www.kci.go.kr

Jiangxi Poetry Group, PEKING UNIVERSITY PRESS, 2005.
10.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 Fenghuang Press, 2006.
11. Yao Dayong, <A discussion on the significance of Xu Fu's poetry in the poetic world around the Formation of Southern Song Dynasty>, *Journal of Jiujiang Teacher's College*, No.1, 2000.
12. Zhao Yanwei, *New Revision of YunLuManChao*, The World Book Co, 1959, Taibei.
13. Zhou Yukai, *Song Dynasty Shixue Tonglun : Common Theory of Poetry studying of Song Dynasty*, Bashu Press, 1997.
14. Zhou Zhongwei, Studying on Xu Fu, Yanbian University Shuoshi Lunwen, 2009.

<참고문헌>

1. 陳伯海·蔣哲倫, ≪中國詩學史≫, 鷺江出版社, 2002.
2. 方回 選評·李慶甲 集評校點, ≪瀛奎律髓彙評≫, 上海古籍出版社, 2008.
3. 黃庭堅, ≪黃庭堅全集≫, 四川大學出版社, 2001.
4. 胡仔, ≪苕溪漁隱叢話≫, 世界書局, 民國65[1976].
5. 柳詠莉, <豫章詩社研究>, 曲阜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6. 송용준·오태석·이치수 공저, ≪宋詩史≫, 역락, 2004.
7. ≪全宋詩≫ 第24冊, 北京大學出版社, 1998.
8. 왕력 저·송용준 역, ≪중국시율학≫, 소명출판, 2005.
9. 韋海英, ≪江西詩派諸家考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10.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11. 姚大勇, <論徐俯在宋南渡前後詩壇的意義>, ≪九江師專學報≫, 第1期, 2000.
12. 趙彦衛, ≪新校雲麓漫鈔≫, 世界書局, 民國48[1959].

www.kci.go.kr

13. 周裕鍇, ≪宋代詩學通論≫, 巴蜀書社, 1997.
14. 周忠偉, <徐俯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life of Xu Fu, a poet, who belonged to the Jiangxi Poetry School, his position in the poetical circle, and the significance of his role in the poetical circle in exploring the poetic world of him by classifying the time into two; before and after moving to the south across the river.

Xu Fu established the Yuzhang Poetry Groupat the late Northern Song Dynasty, and moved to the south. During this period, many poets formed Jiangxi Poetry Groupand made a leading poetic circle in the early Southern Song Dynasty.

Xu Fu sought for changes in the creation of poetry, when the negative sides of Jiangxi Poetry School were on the verge of being revealed. Therefore, he insisted that the learning of writing in the scope of methods should be expanded to those of six dynasties. In terms of the topics, he put an emphasis on the direct and real experience as well as the description of scenery. In addition, he highlighted Zhongdi in the creation. The writing trend of Xu Fu revealed that his poems were comprehensive of the six dynasties and the late Tang Dynasty. Thus, Fresh and natural poetic style can be implied. Therefore, he succeeded to the heritage of previous poets in the poetic world of the early Southern Song Dynasty, playing a role of opening the future.

www.kci.go.kr

Key Words : 서부(Xu Fu), 예장시사(Yuzhang Poetry School), 강서시파(Jiangxi Poetry School), 남송초기(Early Southern Song Dynasty), 중적(hit the bull's eye).

www.kci.go.kr